

與 “이재명 공약예산 확보” vs 野 “李 코드예산” ...예산전쟁

與, ‘새 정부 첫 예산’ 협치 촉구...이재명 공약 뒷받침 예산 확보도

野, 송곳심사 예고...이재명 코드 예산 불가에 대장동 특검 지렛대로

“이재명 후보 대선 공약을 뒷받침할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여당 대표까지 대선을 앞두고 관건선거 천명. 대장동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국민의힘)

10월30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 일정 협의를 이루지 못했다.

예결위는 당초 11월 5일과 8일 종합정책질의와 9~10일 경제 부별 심사, 11~12일 비경제 부별 심사를 거쳐 15~22일 예산소위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일정 확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예결위 심사 일정이 밀리면서 각 상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일정 협의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내달 초부터 각 상임위별로 예산안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최소 1~2주씩 밀리는 모양새다.

국회 예결위의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도 10월 28일에서 11월 1일로 연기됐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은 12월 2일이다.

정부는 확장재정 기준을 유지해 604조4000억원의 ‘초수퍼’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책정했다. 올해 예산안 558조 대비 8.3% 늘어난 규모다.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956조에서 내년 1068조3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3%에서 50.2%로 늘어난다.

내년도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이자 새 들어설 정부가 첫 해 살림을 집행하게 될 예산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민주당은 이 점을 부각하며 순조로운 국회 예산안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치를 요청하고 있다. 당 대선후보인 ‘이재명표’ 공약 추진에 필요한 예산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대폭 삭감된 지역화폐 예산 확보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예외적으로 증가했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6조 원 규모로 축소시켰으나, 당은 관련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예고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와 예산국회를 통해 입법과 예산 심사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많은 국민들에게 제감될 수 있도록 구체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는 25일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특히 지역화폐 예산은 이재명 후보도 지적했지만 증액될 수 있게 하겠다”며 “원래 21조원 규모를 6조원 정도로 축소했는데 확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가채무가 1000조대를 돌파한다며 예산안 송곳 심사를 버리고 있다. 특히 이재명 후보 공약을 뒷받침할 ‘코드 예산’엔 절대 합의해 줄 수 없다며 민주당을 향해 “대선을 앞두고 관건선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6일 서면 논평에서 “지역 화폐는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소비 증대 효과가 없다고 한 사업 아니던가. 여당 대선후보의 코드 예산이라면 국회연구기관의 지적과 기재부의 삭감 의견마저 무

시하는 독선이 허를 내두르게 한다”며 “국가 예산이 여당 썬짓돈인 것 마냥, 막무가내식으로 쓸 수 있는 것인가. 알뜰한 돈으로 국민의 환심을 살 수 있다는 말은 수는 어디서 나오나”고 일갈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더해 ‘대장동 특검’ 수용을 여당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정쟁과 맞물릴 경우 국회 예산안 심사 협

의가 예상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국민의힘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회의에서 “민주당은 오 늘이라도 특검 도입 논의를 위한 원포인트 원내대표 회동에 응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양당 원내대표의 1대1 공개토론을 가질 것을 제안한다.”

공개토론으로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국민들의 심판을 받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차원에서 각 상임

위와 예결위 일정 협의를 막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일괄적으로 여야 간사간 협의를 해주지 말라고 얘기를 한 것 같다”며 “대장동 특검을 이유로 합의를 해주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으니 추측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대선 후보자 인준 안전 통과 뒤 발언하는 심상정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10월31일 오후 서울 중구 스페이스썬에서 서울중부선에서 열린 정의당 전국위원회에 참석해 자신의 대선 후보자 인준의 건이 통과된 뒤 발언을 하고 있다.

홍준표 “대통령되면 박근혜·이명박 사면... 반드시 정권탈환”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10월28일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10월31일 “대한민국의 선진화의 기틀을 닦은 대통령, 이것 이외에 어떤 다른 욕심이나 바람은 없다”고 지지할 호소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이승만·박정희·김영삼 있는 지도자가 될 것”

호소문에서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을 있는 나라의 지도자로 청사에 기록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저는 이번이 정치여정의 마지막 도전”이라며 “그러나 다른 세 후보들은 아직 기회가 많다. 더 많은 경륜과 지혜를 쌓아 도전할 시간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세 분 후보님과 함께 원팀으로 정권을 탈환하고 함께 손잡고 선진국 시대를 여는 담대하고 기승벽찬 여정에 나가겠다”고 했다.

홍 의원은 자신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임자임도 강조했다.

그는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대체

는 저 홍준표로 굳었다”며 “지난 8월 중순까지는 윤석열 후보가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었지만 이제 저만이 이재명 후보를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100% 꺾을 수 있는 후보”라고 자부했다.

홍 의원은 “이번 대선은 전통적으로 우리당이 취약한 지역과 계층에서 표를 더 얻어올 수 있는 후보만이 승리를 보장할 수 있다”며 “2030세대, 호남, 중도층의 지지를 이끌어 내고 본선에서 확실하게 이길 후보는 역시 저 홍준표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조치에 대해서도 비록 그것이 문제인 정

권의 좌파개헌을 막기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해도 당원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데 대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며 “제가 대통령이 돼 특별사면권을 갖는 즉시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의원은 이준석 당대표에 대해 “당대표의 젊은 리더십은 당의 변화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며 “여기에 경륜과 능력을 갖춘 대선 후보가 합쳐지면 정권탈환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고 제가 이런 조합에 가장 어울리고 꼭 맞는 대선 후보라고 감히 자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훗날 홍준표 뺑기를 잘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도록 분골쇄신하겠다. 정권탈환, 나라 정상화, G7선진국 시대 건설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기자

‘전두환 옹호’ 윤석열 대선캠프, 민주당·호남 출신 인사 잇단 영입

“과거 다른 진영이던 공동 목표 위해 힘 모을 것”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캠프에 4선을 지낸 호남 출신 박주선 전 의원과 김동철 전 의원이 공개 지지 의사를 표명한 데 이어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추가로 윤 전 총장을 공개 지지했다.

윤 전 총장의 국민캠프는 31일 민주당 출신의 전직 지방의회 의원들과 중앙당 당직자들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국민캠프에 합류했다고 밝혔다.

캠프 측은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 부위원장과 서울특별시당 수석부위원장을 역임한 정진우 전 민주당 사무총장을 정무특보로 선임했다.

민선시 전 서울시의회 부의장, 안영

철 전 새시대정치연합청년회 부회장, 황병오 전 서울시의원, 김준명 전 서울시의원, 박채순 전 민주평화당 경기도당위원장은 국민통합특보로 임명됐다.

이들은 모두 호남 출신으로 서울이나 수도권 출신의 국민의힘 당세가 약한 곳에서 활동했다.

윤 전 총장 캠프는 “과거에 다른 진영에 계신 분들이라도 정권교체라는 공동의 목표를 함께 실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을 통합하는 정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기동취재본부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